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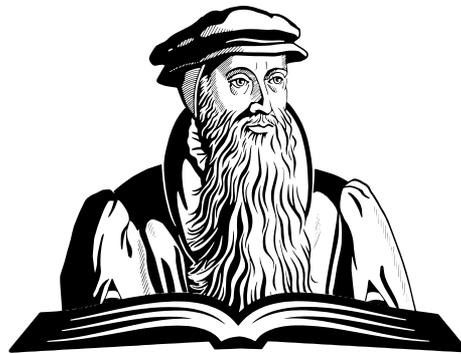
---

#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

## 강의 5: 아브라함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 학습단계

##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 강의 5

## 아브라함

### 강의 주제: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복음의 축복을 분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우상숭배에서, 신앙과 순종의 길로 부르시며 내려오십니다.

### 본문: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3:8).

### 강의 스크립트 5

아브라함이 현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들에서 진행중인 갈등과 좀 더 넓은 의미로 중동 지역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브라함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여기는데 이는 옳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구속역사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신학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후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진행되고 확장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과연 어떻게 다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이후의 성경역사에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합니까? 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강력하게 강조할까요? 우리는 구약성경에서도 신약성경에서 발견하는 복음과 구원의 방법과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제공하시는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 주제들을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오실 구속자와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들으신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던 한가지 흥미로운 사건, 곧 우리의 모든 주제들을 한데 묶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구속사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와 세상을 의미하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광범위한 족보와 미래 국가들의 기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함, 구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던 니므롯이 바로 뱀의 후손을 대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을 통해서 가나안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약속된 대로, 여인의 후손은 셈을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내려오고 그를 통해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고 그 후 중보자로 가는 계통을 잇도록 선택된 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분간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의 계시를 셈족을 통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국가의 목록을 기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차매 구속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될 것이지만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교만하고 반역적인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까지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세상에 분산시킴으로서 그들의 악행을 저주하시고 좌절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펼쳐지는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저주를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계시록 5:9,10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궁극적인 묘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한 자신의 약속 안에 포함시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세상을 별하셨습니다. 이는 지구 전체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의 조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계속 지속되게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32:8,9에서 모세는 이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마 여러분은 앞선 강의에서 제가 구약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른 것을 눈치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옳습니다. 사도행전7:38은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나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던 자가)... 이 사람이라” 다시 연속적인 요소를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셋에서 시작하여 셈과 아브라함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잠시 후 보게 되겠지만 신약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신약성경의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창세기12:1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를 세상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를 실 때 자신의 신성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뒤로 가서 사도행전7장의 스테반에게로 가면 그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적을 떠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15:1에서, 하나님은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1에서, 다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선택교리에 대한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으신 것이지 아브람이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분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상숭배를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호수아24:2은 특별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가 우상숭배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과 세상에 포함된 거짓 신앙과 부패로부터의 교회를 가시적으로 분리하십시오 교회의 새로운 단계를 세우려 하시듯이 믿음과 순종과 거룩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또 이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새로운 기초를 놓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세요. 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8절에서 19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지는 장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여러 번 더 보입니다.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의 구원하는 믿음을 광범위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이를 창세기 15:6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신자의 분명한 예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을 다룰 때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담과의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마다 점점 더 확장됩니다. 창세기 3:15의 언약적 약속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서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보다 더 잘 나타납니다. 이 하나의 은혜언약은 모세와 다윗을 거쳐 새언약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의 토대가 되며 그와 관련된 표현과 초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들은 그 이후에 오는 시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12:1 이하에서 자신의 언약을 시작하시는 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성례적으로 표지와 인장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22장에서 그것을 결론 내립시다.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속된 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약속된 땅, 곧 하나님의 후손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물리적인 땅이 천국에서의 영적인 유산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10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므로, 첫째로 요소는 약속된 땅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속된 후손을 보는데 그분의 육신적인 후손은 약속의 후손을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을 아우르는 많은 결실을 약속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언약에 관한 몇 가지 강조점을 다룰 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강조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적 약속의 핵심은 17:7에 나온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용어 곧 은혜언약의 이 핵심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3에 이르러 최종적인 정점에 이를 때까지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은혜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언약은 피로 말미암아 비준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도축된 동물들의 조각 사이로 지나가시는 구체적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엄숙한 맹세와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셋째로, 은혜언약에 있는 복음적 약속이 가정의 원리를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다시 17:7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언약의 이 요소는 신약성경에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도행전 2:39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창세기 17:7과 거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하신 것이라”

넷째, 이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으므로 창세기 17:11에 보면 복음 약속의 표와 인장인 할례도 역시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이를 행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4:11에서 바울은 할례를 믿음의 의를 가리키는 표시이자 인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약속의 표시가 중생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불신자였고 이삭은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표시를 주라는 명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7:14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출애굽기4:24-26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모세를 죽이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오실 구속자와 구속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12:3절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오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성경의 첫번째 책의 첫 구절 곧 마태복음1:1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3:14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나오는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3:15에 약속된 후손의 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주제는 아브라함에게로 전달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3:14에 기록된 대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은 이방인 신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이 약속은 유대인 곧 육신적인 혈통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건전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로마서4:13에는, “아브라함이 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들이며 그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7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그 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속을 바라보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지배적인 복음의 주제들을 묘사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구속사라는 정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흥미로운 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창세기2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와 우리의 공급자”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이레로 나타내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했던 일 다시 말해서 창세기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둔 시험과 승리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22장의 중요한 요점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양을 제공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시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이 심히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야의 약속을 제한하셨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삭의 삶과 자손들 안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과 멀어지고 또 그리스도와도 결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4:16-25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히브리서11장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중지시켰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돌려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여 덤불에서 숫양을 제공하셨습니다. 절에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입니다. 대속물로 숫양을 제공받은 이후요 이삭이 구원받은 이후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삭은 제단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숫양이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저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모리아땅에 있는 그 산의 정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숫양을 가지고 아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에게 앞으로 주어질 더 탁월한 것에 대한 담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대속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8:56에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분이 가리키신 때가 바로 이 때 곧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바로 이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2장, 창세기 22:2을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를 따라가세요. 이 장소는 훗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또 그 후에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고 제단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수천 수만의 제사가 수세기에 걸쳐서 바로 그 장소에 있는 동일한 곳에서 드려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장소도 이후 이천년이 지난 후에 같은 장소인 모리아산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양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몰랐을 것입니다. 이삭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도 약속의 아들이었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분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성자입니다. 이삭도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이었나요?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야 겨우 얻은 아들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도 역시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성자로서 오실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어린양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의 도입부에는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삭도 초자연적으로 출생했습니까? 이삭은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더 초자연적입니다. 그 분은 처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보다 더 온유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되었습니다. 모든 구약성경에서 희생양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가는 유일하신 마지막 희생양을 가리킵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5:7,8,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흥미로운 이야기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는 구속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빛 아래서 창세기22장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설교자들도 역시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실재들을 감안하여 이 본문을 설교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신선한 빛과 색깔을 주며 이 본문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하여 창세기22장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어떤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가지는 적실성을 여기서 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분은 오늘도 모든 참된 신자들이 가진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 자신과 구원에 대한 계시를 이해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영감된 설명이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족장들의 시기에 제공하시는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